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금주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나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찬 357장) /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찬 182장) / 하나님의 은혜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맡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 우리말성경)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6절 | 개역개정)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믿음은 우리의 열등감을 이기게 합니다”

1. 모세의 열등감

임포스터 증후군(Impostor Syndrome)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는 주로 명문대 출신,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기업가 등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지나친 열등감입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정체성의 혼란과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애굽 왕가의 적통 왕자들과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환경이었으나, 내면에서는 심각한 열등감과 혼란을 겪으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오는 비교와 자기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모세의 열등감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며, 그가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네 번이나 거절하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이까?" /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바로 앞에서 위축되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며,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선언하시며, 모세의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3. 바로왕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했으나, 바로는 이를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4.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라!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을 안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열등감과 자기 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갖으세요!

1. 인생에서 성취감을 최고로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가능하게 했던 나의 강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2.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도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성을 보시고 사용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모세는 약점(말을 잘하지 못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4.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고백했던 경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그 후에 그것을 극복했는지, 아니면 아직 극복 중인지도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등감을 이겨내는 용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 우리의 성취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도록

모세처럼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를 구하세요.

-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신뢰하도록
-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의 트리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기도하세요.

- 과거의 상처와 비교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러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